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향기”

(타사의 정원) 타사휴터, 도비 마틴 시유, 리처드 부라운 시유  
공평히 나누기

08-3-3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지난반세기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등에 종사하였으며  
환경을 넘긴 나이에 또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지구환경정책학을 공부하는 일을 주저  
하지 않았고, 지금도 다양한 학문분야에 참여하면서 평생 학습으로 활동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동해안에서 삽화작가인 타사 휴터의 삶의 향기에 심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그녀에 관한 책 다섯 권 중의 (타사의 정원)을 손에 잡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책은 2006년 12월 발매 초판중 국외에서 선물해 준 것입니다.  
사후일로 전달된 터라 귀가길 전차로에서 책을 펴들며 읽었는데 230쪽의 책장을  
거의 다 넘길 때까지 전혀 대충 읽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담긴 간결한 글과 매혹적  
인 사진들은 완독 후 제법껏 머리에서 교감생각을 더듬듯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 책의 이야기는 1915년생으로 올해 나이 94세인 타사 휴터가 한여인으로서의  
위풍당당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난 56세 되 한 골담쟁 30만평 원아름다운 원인으로  
관심 갖게 되는데서 시작된다. 그녀는 40대에 남편과 세 자녀를 낳고 손녀를  
팔아 국내로 이주한 후로도 다들 잊지 않던 삶이 지겨워 함흥하는 정경을  
만들어 냈다. 제로 해산되고 있는 '백세인생'이 이젠 '리틀'도 하루에 전국의  
보여야 하므로 그녀가 새삼스러이 가장 먼저 성공한 신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여겨  
진다.

더욱 관심을 갖게 해주셨던 그녀는 19세기 생활양식을 취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양식으로 저서집에서 먹거리 생산과 조리에 옛날 농기구와 조리법 등을  
사용하며 있는 곳과 전통하는 모습들도 원자재 생산으로 물론 자연을 숭배하고  
유체적라고 못잡을 지에서 못을 파고 앉아서 머리 19세기 원주민의 슬로 라이프스타  
일을 고집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산다. 타사는 인스타그램의 오늘의 지리정보인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삶의 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이 아닌 자기만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이 책은 꽃과 타사의 특이한 생활양식을 통해 인연이 깊은 도비 마틴의 맛  
깔스런 글과 리처드 부라운이 특색있는 카메라 앵글에 잡힌 장면들을 그리고  
타사의 통찰력 넘치는 말들로 채워졌다. 정원의 사계절 풍경 속에서 19세기  
여인의 못지않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은  
어느 것 하나 겉잡을 수 없는 것이 없다. 바닷가도 보이고 들도 보이는 장면들이다.

지구환경정책을 지금 위기정계에 몰려가고 있으며 백세인생을 전경하게  
살아가려는 그녀가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타사를 보여준  
그녀의 삶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시줄하는 법을 준다. 백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이 순간에도 손에서  
일깨워 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이야기 기대된다. 새삼  
지구환경을 그녀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간사 잊지 않고 기대를 버리고 살아가길 바란다.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향기”

- 『타샤의 정원』 (글-타샤 류더 · 토비 마틴, 사진-리처드 브라운)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등에 종사하였으며 환갑을 넘긴 나이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지구 환경정책을 공부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을 만큼, 지금도 다양한 학습 모임에 참여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활동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동화작가이자 삽화작가인 타샤 류더의 삶의 향기에 심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그녀에 관한 책 다섯 권 중에 <타샤의 정원>을 손에 잡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 책은 2006년 12월 말경 손봉숙 국회의원이 선물해 준 것이다. 사무실로 전달된 터라 귀가길 전철 속에서 퍼즐게 되었는데 230쪽의 책장을 거의 다 넘길 때까지 눈을 떼 수가 없었다. 이 책에 담긴 간절한 글과 매혹적인 사진들은 오늘날 나의 베갯머리에서 고향 생각을 더듬듯 퍼즐게 하고 있다.

이 책의 이야기는 1915년 생으로 올해 나이 94세인 타샤 류더가 한 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난 56세에 산골땅 30만평을 아름다운 화원으로 만들 꿈을 펴는 데서 시작한다. 그녀는 4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밭과 손품을 팔아 국내외의 좋은 종자는 다 모아서 일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왕성한 정원을 만들어 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백세 인생을 이모작 하라’ 는 화두에 견주어 보면 아마도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여겨진다.

더욱 큰 관심을 갖게 한 것은, 그녀가 19세기 생활양식을 철저하게 고수했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집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대로 아들이 지은 것이며, 먹거리 생산이나 조리에 사용했던 집기들도 오래된 구식 기구였다. 입는 옷과 사용하는 모포 또한 직접 원자재를 생산하여 자연염색하고 물레질해서 옷감을 짜는 등, 옷을 손수 만들기까지 19세기 선조들의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에 입각하여 자급자족하는 삶을 산 것이다. 타샤는 일찍부터 오늘의 시대 정신인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의 삶, 즉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을 실행한 것이 다. 극기(克己)하는 삶이 아닌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이 책은 꽃과 타샤의 특이한 생활방식을 통해 인연이 닿은 토비 마틴의 맛깔스런 글과 리처드 브라운의 특출한 카메라 앵글에 잡힌 장면들, 그리고 타샤의 통찰력 넘치는 말들로 채워졌다. 19세기 옷차림을 한 그녀가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모습의 그림들은 어느 것 하나 겹작품 아닌 것이 없다. 봐도 또 보고 싶은 장면들이다.

지구환경 시계가 지금 위기 직전을 가리키고 있으며, 백세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과제가 현 세대의 당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타샤가 보여준 그의 삶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생의 전반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녀가 이 순간에도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고 있다니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녀와 같이 동화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해도, 어느 한구석 탐아갈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고 싶지 않다.